

## 중국 조선족 아동과 한국 화교 아동의 문화접변 유형 및 학교적응 비교연구\*

Acculturation Strategies and School Adjustment of Korean-Chinese and  
Chinese-Korean Children\*

조복희(Bokhee Cho)<sup>1)</sup>

이주연(Joo-Yeon Lee)<sup>2)</sup>

### ABSTRACT

In this study of acculturation strategies and adjustment in Korean-Chinese and Chinese-Korean children, 273 Korean-Chinese and 207 Chinese-Korean were asked about levels of assimilation to the mainstream language and culture, ethnic identity, emotional attitude toward their schools, teachers' support, peers' support, and social distance from the mainstream. Results revealed that separation was the most preferred strategy followed by integration, assimilation, and marginalization for both subject groups. Children categorized by separation strategies reported highest scores in school adjustment variables and lowest scores in social distance. There were some differences between Korean-Chinese and Chinese-Korean children in cultural assimilation, ethnic identity, emotional attitude toward school, and teacher's support. These findings were explained by their immigration history and the uniqueness of each mainstream society.

**Key Words** : 중국 조선족 아동(Korean-Chinese children), 한국 화교 아동(Chinese-Korean children), 문화접변 유형(acculturation strategy), 학교적응(school adjustment),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

### I. 서론

중국 조선족과 한국 화교는 서로 다른 이민사

회 안에서 고유의 민족성을 지켜나가고 있는 독특한 소수민족 집단들이다. 소수민족 집단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와

\* 이 논문은 2002년,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2-HM2501, KRF-2003-072-HM2001).

<sup>1)</sup> 경희대학교 아동가족전공 교수

<sup>2)</sup> 경희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 Joo-Yeon Lee, 72 Naesu-Dong Jongno-Gu King's Garden APT 3-305, Seoul 110-070, Korea  
Email : idscot@hanmail.net

같은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그들 주류사회의 특성과 시각을 반영한다(Berry, Kim, Power, Young, & Bajaki, 1989; Castro, 2003; Phinney, Chavira, & Williamson, 1992; Roccas, Horenczyk, & Schwartz, 2000; Ward & Rana-Deuba, 1999). 대표적인 예로써, 미국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초기 연구들은 미국의 소수민족 통합정책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그 결과로 소수민족들의 주류문화(백인 중산층 문화)에 대한 동화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으며, 주류문화에 대한 동화의 정도가 적응의 정도라는 공식을 일반화시켜 왔다(Gordon, 1964). 그러나 최근 소수민족 집단의 적응을 동화가 아닌 문화접변의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주류문화에 대한 수용과 함께 민족성의 보존을 적응의 중요한 차원으로 인식하게 되었다(Berry, 1989, 1995; Phinney, 1990). 보다 최근에 미국 등 서구사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집단에 대한 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수민족 집단의 이민역사는 물론 주류문화의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Taylor, 1989; Cho, Han, & Lee, 2005; 이장섭, 1993; 조복희 · 이귀옥 · 박혜원 · 이주연, 2005).

소수민족 집단들에게 동화정책을 실시한 미국 등의 서구사회와는 달리, 중국은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영향으로 중국 조선족은 민족 자치주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민족언어와 민족문화를 전승하여 왔다(임계순, 2003). 한편, 한국 화교는 한국 정부의 반동화정책과 한국 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로 인해 한국문화로부터 구별되는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해 오고 있다(원국동, 2003; 이윤희, 2004). 이와 같이 중국과 한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은 서로 매우 달랐으나 결과적으로 두 국가에 거주하는 조선족과 화교에게 100년이 넘는 이민역사 속에서 자의건

타의건 각 집단의 민족문화를 유지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중국 조선족과 한국 화교가 처한 이러한 주류사회의 특성은 그들 집단의 독특한 이민역사와 함께 그들의 주류사회에 대한 적응에 반영될 것이며, 따라서 서구사회의 소수민족 집단과는 다른 적응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00년이 넘는 이민역사에도 불구하고 자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이어가고 있는 두 소수민족 집단인 중국 조선족과 한국 화교를 대상으로 그들의 문화접변 양상과 적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중국 조선족 집단과 한국 화교 집단의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화접변 유형과 학교적응, 주류사회에 대한 거리감 등을 조사함으로써, 각 소수집단의 미래를 이끌어 갈 다음 세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아동들에게 있어 주류사회와 주류문화에 대한 적응은 그들의 심리사회적 발달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Castro, 2003).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선족과 화교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두 민족 집단에 대한 비교연구는 민족적 특수성과 이민사회의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하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199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중국사회는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문화의 도입으로 많은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한 중국의 사회, 경제적 발전은 중국을 21세기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 시켰으며, 중국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Gramm, 2005; 장엔링, 2005). 중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조선족과 한국 화교는 한국과 중국의 교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통일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조선족과 한국 화교에 대한

이해는 소수민족으로서의 그들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적응 그리고 그들 소수민족집단의 존속과 발전은 물론, 한국의 미래발전과 성장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중국 조선족과 한국 화교 아동의 주류 문화에 대한 적응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삶과 그들 소수민족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소수민족의 문화적응과 적응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비록 이전의 연구들은 문화적응과 적응사이의 상관관계를 일관되게 보고하기는 하나(Berry, 1997; Castro, 2003; Phinney, 1990, 1997; Ward & Rana-Deuba, 1999), 이러한 결과들은 서구사회에 국한된 것으로 여겨진다. 문화적응은 개인이 둘 또는 그 이상의 문화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의된다(Berry, 1995). 따라서 문화적응은 문화에 대한 통합과 차별화의 과정이며 가치체계의 선택적 수용이라는 매우 역동적인 과정을 포함한다(Berry, 2002). 그러므로 이러한 역동적 과정에 개입되는 문화들의 특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별히 문화적응은 두 문화와 두 언어를 동시에 습득해야 하는 소수민족 집단의 아동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필수적인 사건이다(Lynch, 1992). 따라서 소수민족 집단 아동들의 문화적응은 그들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Castro, 2003; Phinney, 1990, 1997).

문화적응을 주류문화에 대한 단일선상의 동화 개념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다차원적인 통합의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연구자들은 문화적응을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대표적인 문화적응 유형의 분류로 Berry, Kim, Power, Young, 그리고 Bujaki(1989)의 분류방법을 들 수 있다. 그들은 민족집단, 주류사회, 그리고 다른 민

족집단들에 대한 태도 등 다차원적 개념을 바탕으로 문화적응을 4가지 유형(통합, 분리, 동화, 주변화)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Lieber, Chin, Nihira, 그리고 Mink(2001)는 민족집단에 대한 정체감과 주류사회에 대한 성향의 독립된 두 차원을 기준으로, Castro(2003)는 민족문화에 대한 보존과 다른 민족집단에 대한 태도의 두 차원을 기준으로 Berry와 유사한 문화적응의 4가지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처럼 연구자에 따라 유형분류의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들 문화적응 유형분류는 주류문화에 대한 태도와 민족문화에 대한 태도의 개념을 각각 독립된 차원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또한 이들 문화적응 유형 연구들은 문화적응 유형과 적응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보고한다.

먼저, 문화적응의 네 가지 유형별 분포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의 순으로 나타난다(Castro, 2003). 또한 이들 네 가지 문화적응 유형 중 통합유형은 가장 높은 적응점수와 관계가 있는 반면, 주변화는 가장 낮은 적응을 보인다. 그리고 분리와 동화유형의 심리사회적 적응 점수는 연구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동화유형이 분리유형보다 다소 높은 적응 점수를 보인다고 보고한다(Castro, 2003; Phinney, 1990; 1997). 이러한 서구사회 소수민족 집단의 문화적응 유형과 적응에 대한 일관된 결과들은, 주류문화에 대한 동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과로 보여진다. 즉, 다민족 통합과 주류문화로의 동화를 강조한 미국 등의 서구사회에서는 민족 정체성이나 민족문화의 보존보다는 주류사회에 대한 동화가 소수민족들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류 문화에 대한 동화정도와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경험적 연구들에 의하면, 주류사회에 더욱 동화될수록, 더 높은 행복감, 자아개념,

내외통제성 점수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rossman, Wirt, & Davids, 1985; Ward & Rana-Deuba, 1999).

그러나 중국 조선족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의 결과들을 보면, 서구사회의 소수민족집단과는 다른 결과를 보고한다. 비록 많은 수의 연구가 수행되지는 않았으나, 중국 조선족 청소년의 문화적변 유형과 적응의 관계를 연구한 박성연과 도현심(2001)은, 통합유형과 함께 높은 분리유형의 분포를 보고하였다. 또한 통합유형의 청소년들은 가장 높은 자아존중감을, 분리유형의 청소년들은 높은 사회적 능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비슷하게, 조선족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집단의 아동이 한족문화에 동화된 집단에 비해 더 높은 내적통제성(조복희 · 박태수 · 한세영, 2004)과 학교적응, 성취동기, 교사지지(Cho, & et al., 2005)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처럼 중국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들에서는 민족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변과 적응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불일치는 보다 정확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때 특히 소수민족집단의 특성과 주류사회의 특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조선족 아동과 한국 화교 아동의 문화적변 유형과 적응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그들의 이민역사와 사회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중국 조선족은 중국 내 55개의 소수민족 중 13번째로 큰 소수민족집단으로서, 현재 중국 각지에 약 203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중국 조선족의 이주역사는 1860년대에 청나라의 황무지 개간을 목적으로 한 강제이주로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시대에는 강제징용, 혹은 독립운동을 위한 망명 등의 형태로 지속되었으

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때까지 이어졌다(임계순, 2003). 중국 조선족은 이민 초기부터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에 의해 민족집단화가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결과로 현재까지도 전체 중국 조선족의 96%가량이 동북 3성(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에 거주하고 있다. 중국 조선족의 43%가 거주하는 중국 최대의 조선족 자치주인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는 조선어가 주언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조선족의 문화와 가치, 태도 등이 보존되고 있다(국립민속박물관, 1997; 1998). 또한 이러한 민족문화의 보존경향은 다소 정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심양시와 할빈시 등과 같은 대도시의 중국 조선족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Cho, & et al., 2005).

그러나 1990년 이후 중국의 개혁 · 개방과 함께 중국 조선족들에게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 조선족들은 주로 조선어를 사용하고 자녀들을 마을의 조선족 소학교에 보내며 민족언어를 계승해왔으나 개혁 · 개방이후 급속한 인구유동과 타민족(특히 한족)과의 문화접촉으로 인해 민족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더욱이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민족학교가 와해되는 등의 전반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이귀옥 · 전혜정 · 박혜원 · 원영미 · 김영주 · 박태수 · 나은영, 2003).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연변과 같은 조선족 자치주보다는 대도시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고지영, 2003; 조복희 · 박혜원 · 이사라 · 이주연 · 박민정, 2005). 심양과 할빈 등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이미 조선족학교에서도 한어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선족 젊은이들 중 60%가 공적인 장소에서 조선어사용을 포기하고, 또한 조선족 가정에서도 한어가 주요 대화수단이 되고 있다고 한다(이귀옥 등, 2003). 이처럼 최근 10년 사이에 나타난 중국과 중국 내 조선족 사회의 변

화는 특히 조선족 아동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야기시켰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조선족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화접변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조선족 아동의 문화접변 양상은 최근 급격하게 일고 있는 중국사회의 변화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중국 조선족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특성과 이민역사를 반영함으로써 서구사회의 소수민족과는 다른 특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1882년경 시작된 한국 화교의 한국 정착은 중국정부(청나라)의 종주권 강화라는 목적과 비호 아래 이루어졌으며, 이민 초기에 인천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였다. 1949년 중국의 공산화와 함께 중화민국(대만) 정부는 한국 화교를 자국의 해외국민으로 편입시키고 철저한 반공교육으로 관리하여 현재까지도 많은 수의 화교들이 대만국적을 갖고 있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 화교들은 한국국적 취득, 중국여권 신청, 혹은 대만여권을 지닌 비수교국 난민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등, 본국의 정치적 변화와 그에 따른 한국, 중국, 대만간의 관계 변화로 인해 정체성에 있어 많은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이재광, 2004; 전우용, 2003). 한국 화교들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그들은 중국인과 한국인의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독특한 존재라는 인식과 함께, “한국 화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 가고 있다고 보고한다(이윤희, 2004; 이재광, 2004).

이처럼 중국의 정치·사회적 변화로 인해 많은 한국 화교들은 대한민국을 사실상 유일한 고향으로 인식하고 있다(원국동, 2003). 더욱이 현재 화교의 주류는 대부분 한국 출생자들로서 그들의 생활은 중국이나 대만보다는 한국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생활면에서도 철저히 한국화되었다 할 수 있다(왕춘식, 2002; 이재광, 2004). 그러나 한국 화교들이 한국인으로서 완전히 동화되지 못하는 것은, 한국의 반이민정책과 속인주의로 대표되는 철저한 반동화정책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원국동, 2003). 실제로 한국 화교는 중국계 한국인이 아닌 중국계 외국인의 신분으로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세계 화교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매우 독특한 사례이다.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 하에서 한국 화교의 민족문화적 전통은 화교학교를 통해 전승되어 왔다. 민족성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화교민족학교의 성장은 한국 정부의 화교교육에 대한 자유방임적 정책으로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화교학교의 민족교육에도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견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학생수 감소에 따른 화교학교의 폐쇄이다(장수현 2001). 이처럼, 현재 한국 화교는 민족정체성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집단의 존속 자체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화교 아동들의 주류사회에 대한 적응과 태도 등을 조사하는 것은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 화교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두 국가간의 매개자로서의 화교에 대한 관심증가와 함께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연구의 주제를 살펴보면, 화교경제와 조직운영(중국과 화교사이의 네트워크) 등 거시적 접근의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심리학적 접근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부이다(김경국·최승현·이강복·최지현, 2003). 반면, 한국 화교의 실생활과 그들의 한국 내 적응 등에 대한 미시적 접근의 연구는 상대적

으로 매우 적으며, 특히 화교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에서 배제되었던 한국 화교의 주류문화에 대한 적응을 화교아동을 대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중국 조선족과 한국 화교는 서로 다른 이민역사와 주류사회의 소수민족집단에 대한 정책 등에 의해 독특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두 소수민족 집단의 문화접변과 적응양상은 자발적 이민과 주류사회의 통합정책의 특성을 갖는 서구사회의 소수민족집단과는 다른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수민족 통합정책을 시행하는 서구사회와는 상반된, 소수민족 분리주의 환경하에서 생활하는 두 소수민족 집단인 중국 조선족과 한국 화교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주류사회에 대한 동화와, 그에 따른 학교적응 및 사회적 거리감을 조사하였다.

아동은 성장해감에 따라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게 되며, 그로 인해 아동의 발달에서 학교생활의 영향력은 점차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Sroufe, Cooper, & DeHart, 1992).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의 문화접변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은 학교적응과 학업성취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멕시코계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Lóez, Ehly와 García-Vázquez(2002)의 연구에 의하면, 문화접변의 네 가지 유형 중 통합유형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학업성취를 보인다. 반면, 소수민족 아동들은 그들 민족의 언어와 생활양식, 학습방법 등의 영향력에 의해 주류문화의 교육체계에서 실패하는 경향이 높다는 보고도 있다(Truba, 1988). 이 같은 결과들은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이 그들의 문화접변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문화접변과 주류사회 학교 시스템의 특성은 아동의 발달에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민족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중국 조선족과 한국 화교아동의 문화접변과 학교적응 양상은 서구사회의 그것과 전혀 상반된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국 조선족 아동과 한국 화교 아동의 문화접변 유형 분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국 조선족 아동과 한국 화교 아동의 문화접변 유형에 따라 학교적응 변인들과 사회적 거리감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주류문화에 대한 동화, 학교적응 변인, 사회적 거리감에 있어서 중국 조선족 아동과 한국 화교 아동 간에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중국 연길시와 심양시의 조선족 소학생(4학년 이상)과 중학생 총 273명, 그리고 한국 서울시의 화교 소학생(4학년 이상)과 중학생 총 207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중국 조선족 아동의 자료는 종단연구 자료의 일부로써 원자료의 총 사례수는 830명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 화교 아동과의 비교를 위하여 830명중 30%를 무선으로 추출하여 273명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중국 조선족 아동의 평균연령은 12.6세였으며 남아와 여아의 비율은 약 52% 대 48%(137명 : 125명, 결측-11명)이었다. 한편, 한국 화교 아동의 평균연령은 13.2세였고 남아와 여아의 비율은 약 57% 대 43%(118명 : 88명)였다. 본 연구

에 참여한 중국 조선족 아동과 한국 화교 아동은, 부모 모두가 조선족 또는 화교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측정도구

### 1) 문화접변 유형

중국 조선족 아동과 한국 화교 아동의 문화접변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주류문화에 대한 동화정도와 민족정체감을 측정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접변 유형의 분류는 연구자마다 매우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Lieber와 그의 동료들(2001)이 사용한 주류문화에 대한 동화와 민족정체감의 이차원적 분류방식을 사용하였다.

주류문화에 대한 동화정도는 Mendoza와 Martinez(1989)가 개발한 The Cultural Life Style Inventory를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가정내 언어요인, 가정의 언어요인, 문화적 친밀감과 활동, 문화적 정체감과 자부심, 사회적 관계와 활동 등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27문항의 원 척도 중, 본 연구에서는 원문의 취지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선족 아동과 화교 아동의 상황에 맞는 문항들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이 때, 사회적 관계 및 활동에 관한 질문들은 그 내용이 서구문화중심이라 여겨져 본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즉, 기도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묻는 질문 등이 제외되었으며, 데이트할 상대의 민족에 관한 문항이나 배우자, 직장동료와의 언어사용 등은 본 연구대상이 아동이었으므로 문항에서 제외시켰다. 최종적으로 10개 문항이 선택되었고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언어적 동화와 관련된 질문의 경우, 1점은 모두 민족어(조선어/중국어), 2점은 거의 민족어, 3점은 민족어와 주류어를 반반씩, 4점은 거의 주류어, 5점은 모두 주류어(중국어/한국어)로써 점수

가 높을수록 주류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적 동화와 관련된 질문은, 1점이 거의 모두 민족문화(조선/중국), 2점은 대개 민족문화, 3점은 민족문화와 주류문화 반반씩, 4점은 대개 주류문화, 5점은 거의 모두 주류문화(중국/한국)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주류문화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10개의 문항을 가지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언어요인(5문항)과 문화요인(5문항)으로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각각의 내적 신뢰도 Cronbach  $\alpha$ 값은 .74(언어)와 .63(문화)였다.

민족정체감은 조선족/화교로서의 인식, 조선족/화교라는 사실의 중요성, 조선족/화교라는 자부심 등의 3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세 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78이었다.

### 2) 사회적 거리감

한 개인이 갖고 있는 특정집단 구성원과의 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김석호, 1998)으로 정의되는 사회적 거리감은, Borgadus(1925/1993)가 개발한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근거로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Borgadus의 사회적 거리감 원 척도는 1) 결혼하겠다, 2) 친한 친구로 받아들이겠다, 3) 함께 사무실에서 일하겠다, 4) 이웃으로 받아들이겠다, 5) 그저 아는 사이로만 지내겠다, 6) 이웃으로 지내는 걸 용납할 수 없다, 7) 내 나라에서 추방하겠다 등의 7가지 지표를 가지고, 한 개인이 특정집단 구성원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의 관계를 원하는지 누적척도로 응답하게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집단의 특성(소수민족)을 고려하여 결혼, 친구, 또는 이웃에 관련된 3문항만을 선정한 후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3문항의 신뢰도는 .68이었다.

### 3) 학교적응 변인들

중국 조선족 아동과 한국 화교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에 대한 태도, 교사지지, 그리고 또래지지를 측정하였다. 학교에 대한 태도 측정은 윤재은(1994)의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에 대한 정서적인 태도 측정을 위한 5문항이 사용되었으며, 이들의 신뢰도 계수는  $\alpha=.67$ 이었다. 교사지지와 또래지지는 구자은(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지척도 중 교사관련 3문항과 또래관련 3문항을 각각 사용하였다. 각 변인들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교사지지가  $\alpha=.76$ 이며 또래지지는  $\alpha=.74$ 였다. 학교적응 변인들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의미한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절차

본 연구에 사용된 중국 조선족 아동의 자료는 2002년 12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중국 길림성 민족교육국과 요령성 교육학원 민족교육부의 도움을 얻어 연길시 소재 조선족 소학교 두 곳과 중학교 두 곳, 심양시 소재 조선족 소학교 두 곳과 중학교 한 곳에서 수집되었다. 회수된 자료들 중 한족 학생의 경우를 제외한 총 830부의 설문자료 중, 무선추출에 의해 27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한편, 한국 화교 아동의 자료는 2005년 6월 서울시 화교 소학교 한 곳과 중·고등학교 한 곳에서 수집하였다. 소학교와 중·고등학교에 각각 250부씩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412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고등학생의 응답을 제외한 310부의 설문자료를 가지고 부모의 민족을 분석한 결과, 부모 모두가 화교인 경우가 전체의 66.8%인 207명이었으며 이들의 자료만을 최종분석에 포함하였다.

중국 조선족 아동과 한국 화교 아동의 문화적

변 유형은 Lieber와 그의 동료들(2001)의 문화적 변 유형 분류방법에 근거하여 통합, 분리, 동화, 주변화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즉, 연구대상자들이 보고한 민족정체감 점수를 하나의 차원으로 두고, 주류문화에 대한 언어, 문화적 동화점수를 또 다른 독립된 차원으로 두는 이차원 유형분류방식을 사용하였다. 각 차원에서의 중앙값을 기준으로<sup>1)</sup>, 강한 민족정체감을 소유하는 동시에 주류문화에 대한 동화점수도 높은 집단을 통합유형으로, 민족정체감 점수는 높은 반면 주류문화 동화점수는 낮은 집단을 분리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민족정체감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고 주류문화에 대한 동화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은 집단은 동화유형으로, 두 차원 모두에서 낮은 점수를 보고한 집단은 주변화유형으로 정의하였다.

각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화적변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일원분산분석을 사용하여 문화적변 유형에 따른 학교적응 변인들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주류문화에 대한 동화, 학교적응, 주류사회에 대한 거리감에 있어서의 두 민족 집단 간 차이는 t-test 통해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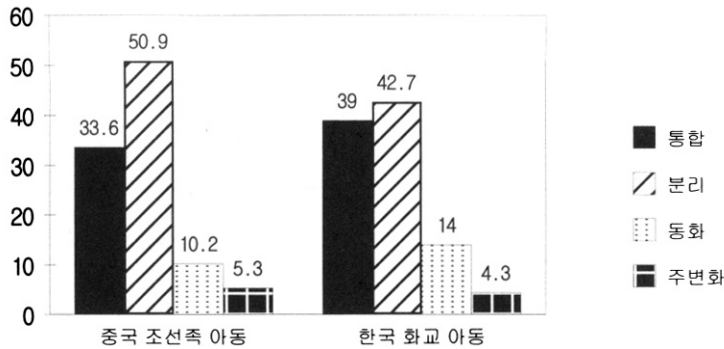
## Ⅲ. 결과 및 해석

### 1. 조선족 아동과 화교 아동의 문화적변 유형 분포

중국 조선족 아동과 한국 화교 아동의 주류사회에 대한 문화적변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네

1) 민족정체감과 주류문화 동화정도의 두 차원 모두 5점 척도로 측정하였기에, 중앙값 3점을 제외한 2.99이하와 3.01이상으로 분류하여 네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림 1) 중국 조선족 아동과 한국 화교 아동의 문화적응 유형분포(%)

가지 문화적응 유형(통합, 분리, 동화, 주변화)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 의하면, 중국 조선족 아동과 한국 화교 아동의 문화적응 유형분포는 두 집단 모두에서 분리, 통합, 동화, 주변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네 가지의 각 유형별 백분율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조선족 아동의 경우, 분리유형이 전체 조선족 연구대상 아동의 약 51%(115명)를 차지하였고, 통합유형이 76명으로 34%, 동화유형이 23명으로 10%, 그리고 주변화유형이 12명으로 5% 가량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화교 아동은 분리유형이 전체 화교 연구대상 아동의 43%(70명)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으나, 그 다음으로 많은 분포를 차지한 통합유형(39%/64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동화유형은 14%(23명) 그리고 주변화유형은 4%(7명) 정도의 낮은 분포를 나타냈다.

## 2. 조선족 아동과 화교 아동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학교적응과 사회적 거리감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학교적응과 사회적 거리감에서의 차이 분석에는, 문화적응 네 가지 유형 중 두 소수민족 집단 모두에서 5%이하의 매

우 낮은 분포를 보인 주변화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세 유형(통합, 분리, 동화)만을 포함시켰다.

### 1) 조선족 아동의 문화적응 유형별 학교적응과 사회적 거리감

중국 조선족 아동 중 통합, 분리, 동화유형으로 분류된 세 집단 아동들의 학교적응 변인들과 사회적 거리감의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학교에 대한 태도( $F=7.00, p<.001$ ), 교사지지( $F=4.58, p<.05$ ), 또래지지( $F=3.65, p<.05$ ), 사회적 거리감( $F=3.58, p<.05$ )의 모든 변인에서 문화적응 유형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에 대한 태도 점수는 통합( $M=3.78$ )과 분리유형( $M=3.82$ )이 동화유형( $M=3.20$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분리, 통합, 동화의 순으로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지지와 또래지지는 분리유형의 평균이 각각 3.99와 4.14로, 동화유형의 평균인 3.35와 3.64에 비해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였다. 통합유형의 평균은 각각 3.72와 2.97로 나타나, 교사지지와 또래지지도 분리, 통합, 동화의 순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사회적 거리감은 분리유형( $M=2.87$ )이 다른 두 유형(통합  $M=3.19$ , 동화  $M=3.30$ )에 비해 통계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분리유

<표 1> 중국 조선족 아동의 문화접변 유형에 따른 학교적응과 사회적 거리감

변 인	문화접변 유형	N	M (SD)	F	Schéffe
학교에 대한 태도	통 합	75	3.78 (.70)	7.00***	A
	분 리	113	3.82 (.77)		A
	동 화	23	3.20 (.70)		B
교사지지	통 합	73	3.72 (1.00)	4.58*	AB
	분 리	110	3.99 (1.00)		A
	동 화	22	3.35 (1.00)		B
또래지지	통 합	74	3.97 (.79)	3.65*	AB
	분 리	109	4.14 (.83)		A
	동 화	23	3.64 (1.10)		B
주류사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통 합	72	3.19 (.91)	3.58*	A
	분 리	108	2.87 (.96)		B
	동 화	22	3.30 (1.00)		A

\* $p<.05$  \*\*\* $p<.001$

형의 아동들이 다른 두 유형의 아동들 보다 주류 사회인 중국에 대해 더 멀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한국 화교 아동의 문화접변 유형별 학교적응과 사회적 거리감

<표 2>는 문화접변 유형 중 통합, 분리, 동화유형으로 분류된 한국 화교 아동들의 학교적응 변

인들과 사회적 거리감에서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표 2>에 의하면, 문화접변 유형에 따라 한국 화교 아동들의 학교에 대한 태도( $F=5.92, p<.01$ ), 교사지지( $F=3.18, p<.05$ ), 사회적 거리감( $F=11.12,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또래지지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화교 아동의 경우 분리유형( $M=3.63$ )에 속한 아동은 동화유형( $M=2.97$ )에 속

<표 2> 한국 화교 아동의 문화접변 유형에 따른 학교적응과 사회적 거리감

변 인	문화접변 유형	N	M (SD)	F	Schéffe
학교에 대한 태도	통 합	62	3.28 (.84)	5.92**	AB
	분 리	69	3.63 (.89)		A
	동 화	23	2.97 (.70)		B
교사지지	통 합	63	3.48 (1.03)	3.18*	A
	분 리	68	3.85 (.79)		B
	동 화	23	3.48 (.82)		A
또래지지	통 합	63	3.79 (.86)	.91	—
	분 리	68	3.98 (.75)		—
	동 화	23	3.81 (.98)		—
주류사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통 합	64	3.52 (.98)	11.12***	A
	분 리	69	2.97 (.87)		B
	동 화	23	3.90 (.73)		A

\* $p<.05$  \*\* $p<.01$  \*\*\* $p<.001$

한 아동보다 높은 학교태도 점수를 보고하였으며, 통합유형(M=3.28)은 중간정도의 점수를 보고하였다. 또한 분리유형(M=3.85)에 속한 아동은 다른 두 유형의 아동들(통합과 동화 모두 M=3.48)에 비해 교사의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였다.

한국 화교 아동의 문화집변 유형별 주류사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비교한 결과, 그 구체적 양상이 중국 조선족 아동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즉, 분리유형(M=2.97)에 속한 화교 아동은 다른 두 유형(통합 M=3.52, 동화 M=3.90)에 비해 주류사회인 한국에 대해 더 멀게 느끼고 있었다.

### 3. 중국 조선족 아동과 한국 화교 아동의 적응 비교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관련 변인들에서 중국 조선족 아동과 한국 화교 아동의 점수를 비교분석 한 결과(표 3), 문화적 동화( $t=-11.78, p<.001$ ), 민족정체감( $t=-3.62, p<.001$ ), 학교에 대한 태도

( $t=4.85, p<.001$ ), 교사지지( $t=2.33,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한국 화교 아동은 중국 조선족 아동에 비해 주류문화에 더 동화되어 있었으며 동시에 높은 민족정체감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중국 조선족 아동은 한국 화교 아동에 비해 학교적응과 교사지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민족적 특성과 주류사회의 특성이 서로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두 소수민족집단인 중국 조선족과 한국 화교를 대상으로 각 집단 아동들의 주류문화에 대한 적응과 그에 따른 학교적응을 조사, 비교하였다. 중국 연길시와 심양시에 거주하는 조선족 아동 273명과 한국 서울시에 거주하는 화교 아동 207명의 문화집변 유형과 학교에 대한 태도, 교사지지, 또래지지, 주류

〈표 3〉 중국 조선족 아동과 한국 화교 아동 간 적응변인들에서의 차이

	구 분	N	M (SD)	t
언어적 동화	조선족 아동	263	3.25 (1.05)	.57
	화교 아동	193	3.20 (.87)	
문화적 동화	조선족 아동	271	2.34 (.77)	-11.78***
	화교 아동	203	3.13 (.69)	
민족정체감	조선족 아동	265	3.01 (.92)	-3.62***
	화교 아동	204	3.33 (.95)	
학교에 대한 태도	조선족 아동	269	3.72 (.76)	4.85***
	화교 아동	203	3.35 (.86)	
교사지지	조선족 아동	264	3.79 (1.01)	2.33*
	화교 아동	202	3.59 (.91)	
또래지지	조선족 아동	270	3.99 (.86)	1.18
	화교 아동	204	3.90 (.82)	
주류사회에 대한 거리감	조선족 아동	265	3.80 (.88)	.99
	화교 아동	204	3.72 (.88)	

\* $p<.05$  \*\*\* $p<.001$

사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접변 유형분포를 조사한 결과, 중국 조선족 아동과 한국 화교 아동 모두 분리유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통합, 동화, 주변화의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유형의 순으로 분포하는 서구사회 소수민족의 문화접변 유형과는 매우 다른 결과이다(Berry, & et al., 1989; Castro, 2003; Piontkowski, Florack, Hoelker, & Obdrzalek, 2000; Roccas, Horenczyk, & Schwartz, 2000). 서구사회 소수민족과의 이러한 차이는 중국 조선족과 한국 화교가 100년이 넘는 이민역사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민족문화를 잘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비록 두 소수민족집단 아동이 순서에 있어서 동일한 문화접변 유형분포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비율에 있어서 중국 조선족 아동은 분리유형이 50%이상으로 매우 높은 분포를 보이며 통합유형이 33%를 보인 반면, 한국 화교 아동은 분리유형과 통합유형이 각각 43%와 37%로 비슷하게 분포함으로써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조선족과 한국 화교집단이 거주하고 있는 주류사회의 특수성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국 조선족의 경우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민족집단화에 의해 민족정체감을 고수함과 동시에 민족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전승하는 것이 보다 수월하였던 것에서 높은 분리유형 분포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반면, 한국 화교는 한국 사회의 차별과 편견에 의해 주류사회로부터 분리되어 강한 민족정체감을 보존함과 동시에 주류사회의 문화를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 때문에 분리유형과 함께 통합유형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이와 같은 해석은 경험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소수민족집단의 문화접변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각 집단의 특성뿐 아니라 주류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적인 특성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둘째, 문화접변 유형에 따른 학교적응 변인들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중국 조선족과 한국 화교 모두 분리유형이 가장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보고하였으며, 동화유형이 가장 낮은 학교적응 변인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두 소수민족 집단의 아동들 모두 민족어와 민족문화를 보유할수록 더욱 바람직한 적응양상을 보이는 것으로써, 두 민족 집단 아동의 적응에 있어 민족언어와 민족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서구사회의 소수민족집단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분리유형에 속한 아동과 청소년이 통합유형이나 동화유형에 속한 이들에 비해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 부정적이라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한다(Phinney, 1990). 그러나 중국 조선족과 한국 화교 아동의 경우 오히려 강한 민족정체감과 민족문화의 보존이 그들의 적응에 더욱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본 연구결과는 지지한다. 따라서 소수민족집단에 대해 연구할 때에는 각 집단의 독특한 민족성은 물론 주류사회의 특성들이 간과되어서는 안되며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비록 두 집단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분리유형이 가장 높은 적응점수를 보였으나, 특히 화교 아동의 경우는 또래지지에서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연구대상자들의 또래환경과 관련지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중국 조선족 아동의 학교환경은 전체학생의 90% 가까이가 조선족이었던 데에 반해, 화교아동의 학교환경은 67% 정도가 부모 모두 화교였으며 많은 경우 어머니가 한국인이었다. 더욱이 화교학교에는 부

모 모두가 한국인인 학생도 상당수 존재하였기에, 화교 아동의 또래환경은 조선족에 비해 민족적 특성이 덜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적응 유형에 따라 또래와의 관계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주류사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서의 문화적응 유형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분리유형이 주류사회에 대한 가장 큰 거리감을 보고하였으며 동화유형이 가장 적은 거리감을 보고하였다. 구체적인 점수를 기준으로 해석하였을 때, 조선족 아동과 화교 모두 동화와 통합유형에 속한 아동들은 3점 이상의 사회적 거리감 점수를 보고하여 주류문화에 대해 가깝게 느끼는 반면, 분리유형에 속한 아동들은 3점 이하의 점수를 보고하여 주류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제적으로 주류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주류사회에 대한 태도와 인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중국 조선족 아동과 한국 화교 아동의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중국 조선족 아동은 한국 화교 아동에 비해 학교적응과 교사지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고함으로써 학교에 더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화교 아동은 중국 조선족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류문화에 더 동화되어 있었으며 동시에 높은 민족정체감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 화교 아동의 높은 민족정체감은 그들의 이민역사로 설명될 수 있다. 즉, 한국 화교의 이민은 서구열강의 침탈에 대한 반항으로 중국인이라는 강렬한 자의식이 형성되던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기에 그들은 이민초기부터 기타 세계화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민족의식과 소속감을 갖고 있다(김경국 외, 2003). 더욱이 한국 화교의 강한 민족정체감은 한국의 반이민정책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 등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차별정책은 화교들로 하여금 한국사회에 동화하려는 성향을 만들었다(원국동, 2003). 이러한 이유로 한국 화교 아동의 경우 높은 민족정체감을 지님과 동시에 한국주류문화에도 동화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중국 조선족 아동과 한국 화교 아동이 서구사회의 소수민족 집단과는 다른 문화적응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분리유형에 속한 아동이 부정적인 적응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높은 교사지지를 보고함으로써, 두 소수민족집단에게 있어서 민족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소수민족 통합정책을 강조하는 서구 이민사회와는 다른 한국과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중국 조선족학교와 한국 화교학교의 민족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수민족집단에게 있어 민족학교는 민족문화 전승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다(장수현, 2001). 중국 조선족의 경우, 중국정부의 지원 아래 자치주를 설립하고 소수민족학교를 통해 민족교육의 특성을 전승하여왔기 때문에 주류사회인 중국에 동화되기 보다는 민족문화를 보존하여 왔으며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민족정체감이 확립되어 왔다(이현정, 2001; 임채환·김경학, 2002).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족 학교에서의 적응과 민족문화의 보존이라는 두 변인이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반면, 한국 화교는 지난 100여년 동안 한국에서의 법적, 사회적 제한으로 인해 그 수가 감소하였으며 그에 따라 화교학교도 그 규모와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이재광, 2004; 장수

현, 2001). 이에 화교학교들에서는 한국학생의 입학울 허가하였으며 그 결과로 화교학교 전체 학생의 약 2/3정도만이 양쪽 부모 모두가 화교인게 현 실정이다(장수현, 2001). 이와 같은 화교학교의 민족교육 공동체로서의 기능약화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화교 아동의 낮은 학교적응과 높은 주류문화에 대한 동화(조선족 아동과의 상대적 비교에 의한)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수민족 학교들이 다음세대에게 민족적 특성인 언어와 문화를 전승하는 통로이자 민족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들 소수민족의 존속과 적응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학교적응 변인들은 두 소수민족집단 아동의 문화적응 양상이 현재 그들의 생활적응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후 성인기의 사회적응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Spivak, Marcus, 그리고 Swift(1986)에 따르면, 아동기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는 이후 성인기의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변인이다. 또한 긍정적인 학교생활의 경험과 학업성취는 아동의 긍정적 자긍심의 한 요소로써 아동의 전반적인 심리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준다(Sroufe et al., 1992). 따라서 중국 조선족 아동과 한국 화교 아동은 각자의 민족성을 보유하는 분리유형의 문화적응 특성을 가지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학교생활 적응을 보임은 물론, 긍정적인 교사지지와 또래지지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 높은 학업성취와 자긍심 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취는 성인기에도 긍정적인 사회적응을 보일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중국 조선족과 한국 화교 아동의 문화적응 유형분포의 독특

성을 그들 민족집단의 이민역사와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화적응 유형분포와 사회문화적 특성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조선족 아동과 한국 화교 아동의 문화적응 양상에서의 특성과 그들의 사회문화적 특성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조선족 학교와 화교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연구대상 아동들의 높은 분리유형 분포는 그들이 소수민족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점과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질 것이다. 즉, 소수민족 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그들 부모의 강한 민족적 의식 때문에 자녀를 소수민족 학교에 보냈을 수도 있으며 따라서 그 자녀들 역시 부모의 영향력에 의해 강한 민족적 의식을 가질 확률이 높다. 혹은 소수민족 학교에 다님으로 인해 아동들의 민족적 의식이 높아졌을 수도 있다. 후속연구에서 민족학교가 아닌 주류사회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들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이러한 영향요인의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화교 아동은 서울시 소재 한 개 소학교와 한 개 중·고등학교로부터 모집되었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한국 화교 아동의 전반적인 경향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반면 중국 조선족 아동의 경우, 거주지역의 특성에 따라 문화적응 양상에 차이를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Cho, & et al., 2005)를 감안하여, 조선족 자치주인 연길시와 일반 대도시인 심양시의 조선족 아동 모두를 본 연구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화교아동에 대한 보다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서울시 뿐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화교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 사회의 변화현상을 아동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는 점과, 기존 화교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배제되어 왔던 화교 아동의 적응에 대해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주류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두 소수민족 집단의 문화적변 양상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그들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생태학적 특성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가치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정부와 사회는 중국 조선족과 한국 화교의 민족적 특성을 보존하고 각 소수집단 아동들의 긍정적인 적응과 발달을 위해 화교학교와 조선족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족학교들이 주류사회로부터의 분리됨으로써 소수민족들의 주류사회 편입을 저해하지 않도록(박은경, 1996), 민족학교의 관리, 양성, 발전과 더불어 민족학교와 주류사회간의 연계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지영(2003). 중국 조선족 정체성 변화 분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자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국립민속박물관(1997). 중국 요녕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학술총서 20.
- 국립민속박물관(1998). 중국 흑룡강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학술총서 24.
- 김경국·최승현·이강복·최지현(2003). 한국의 화교 연구 배경 및 동향분석. *중국인문과학*, 26, 495-516.
- 김석호(1998).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사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도현심(2001). 조선족 청소년의 문화적변 유형과 적응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3), 123-136.
- 박은경(1996). *화교가 발붙이지 못한 땅 :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서울 : 또 하나의 문화.
- 왕춘식(2002). 한국 화교 2세의 질곡과 소망. *당대비평*, 6(2), 235-244.
- 원국동(2003). 차이나타운이 없는 유일한 나라 한국 : 한국에 화교(중국계 한국인)는 없고 중국계 외국인만 있다. *World Village*, 3, 290-295.
- 윤재은(1994). 영재집단의 학교생활 적응과 스트레스 및 그 대처방법: 특수목적고교와 인문고교의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귀옥·전효정·박혜원·원영미·김영주·박태수·나은영(2003). *중국 연변 조선족 아동의 이중언어 환경*. 부산 : 서림출판사.
- 이윤희(2004). 동북아 시대 인천 거주화교의 인권실태 및 정체성. *한국사회역사학회지*, 6(2), 5-34.
- 이장섭(1993). 해외한인의 문화적변. *민족과 문화*, 1, 77-97.
- 이재광(2004). 한국화교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 : 화교 교육을 중심으로. *중국학 연구*, 30, 571-591.
- 이현정(2001).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7(2), 63-105.
- 임계순(2003). *우리에게 다가온 조선족은 누구인가*. 서울 : 현암사.
- 임채완·김경학(2002). 중국 연변 조선족의 민족정체성 조사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0(1), 247-273.
- 장엔링(2005).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외자이용 정책. 월간 전경련, 489. [http://emagazine.fki.or.kr/other/webzine/2005-8/html/special\\_5.asp](http://emagazine.fki.or.kr/other/webzine/2005-8/html/special_5.asp)
- 장수현(2001). 한국화교의 사회적 위상과 문화적 정체성. *국제인권법*, 4, 1-30.
- 전우용(2003). 한국 근대의 화교 문제. *고려사학회*, 15, 377-398.

- 조복희 · 박태수 · 한세영(2004). 문화접변 유형에 따른 조선족 청소년의 적응 : 심양, 할빈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1-10.
- 조복희 · 박혜원 · 이사라 · 이주연 · 박민정(2005). 중국 조선족 아동의 사회성, 정서발달과 영향요인. 부산 : 서림출판사.
- 조복희 · 이귀옥 · 박혜원 · 이주연(2005). 중국 조선족 가정의 문화접변 실태 : 연변지역과 심양할빈지역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8), 37-54.
- Berry, J. W.(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 5-68.
- Berry, J. W.(2002).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K. M. Chun, P. B. Organista, & G. Marin(Eds.), *Acculturation :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pp. 15-38).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erry, J. W.(1995). Psychology of acculturation. In J. Bennet Veroff & N. Rule Goldberger(Eds.), *The culture and psychology reader*(pp. 457-488). NY : University Press.
- Berry, J. W., Kim, U., Power, S., Young, M., & Bajaki, M.(1989). Acculturation attitudes in plural societies. *Applied Psychology : An International Review*, 38, 185-206.
- Bogardus, E. S.(1993). A social distance scale.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17, 256-271.
- Castro, V. S.(2003).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Westport, CT : Greenwood Press.
- Cho, B., Han, S., & Lee, J.(2005). A study on Korean-Chinese children's acculturation and adjustment to the mainstream society.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6, 87-102.
- Gordon, M.(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NY : Oxford University Press.
- Gramm, P.(2005). 세계경제흐름의 이해와 동북아 지역 경제의 기회. *월간 전경련* 489. [http : //emagazine.fki.or.kr/other/webzine/2005-8/html/special\\_5.asp](http://emagazine.fki.or.kr/other/webzine/2005-8/html/special_5.asp)
- Grossman, B., Wirt, T., & Davids, A.(1985). Self-esteem, ethnic identity, and behavioral adjustment among Anglo and Chicano adolescents in West Texas. *Journal of Adolescence*, 8, 57-68.
- Lieber, E., Chin, D., Nihira, K., & Mink, I. T.(2001). Holding on and letting go : Identity and acculturation among Chinese immigra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7, 247-261.
- López, E. J., Ehly, S., & García-Vázquez, E.(2002). Acculturation, social suppor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Mexican and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 An exploratory study. *Psychology in the Schools*, 39, 245-257.
- Lynch, E. W.(1992). From culture shock to cultural learning. In E. W. Lynch & M. J. Hanson(Eds.), *Developing cross-cultural competence : A guide for working with young children and their families* (pp. 19-34). Baltimore : Paul H. Brooke.
- Mendoza, H., & Martinex, L.(1989). The Measurement of Acculturation. In A. Baron, Jr.(Ed.), *Explorations in Chicago psychology*(pp. 71-82). NY : Holt.
- Phinney, J. S.(1990).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s and adults : A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08, 499-514.
- Phinney, J. S., Ferguson, D., & Tate, J.(1997). Intergroup attitudes among ethnic minority adolescents : A causal model. *Child Development*, 68, 955-969.
- Phinney, J., Chavira, V., & Williamson, L.(1992). Acculturation attitudes and self-esteem among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Youth and Society*, 23(3), 299-312.
- Piontkowski, U., Florack, A., Hoelker, P., & Obdrzalek, P.(2000). Predicting acculturation attitudes of dominant and non-dominant group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4, 1-26.
- Roccas, S., Horenczyk, G., & Schwartz, S.(2000). Acculturation discrepancies and well-being : The moderating role of conformity. *European Journal*



- of Social Psychology*, 30, 323-334.
- Spivack, G., Marcus, J., & Swift, M.(1986). Early classroom behaviors and later misconduct. *Developmental Psychology*, 22, 123-131.
- Sroufe, L. A., Cooper, R. G., & DeHart, G. B.(1992). *Child development : its nature and course*. NY : McGraw-Hill.
- Taylor, D. M.(1987). Social psychological barriers to childhood bilingualism. In M. Homel & S. Aarsonson(Eds.), *Childhood bilingualism : Aspects of linguistic cognitive and social development*(pp. 183-196). Newbury Park, CA : Sage.
- Truba, H.(1988). Peer socialization among minority students : A high school dropout prevention program. In H. Truba & C. Delgado-Gaitan(Eds.), *In school and society : Learning content through culture*(pp. 201-217). New York : Praeger Press.
- Ward, C., & Rana-Deuba, A.(1999).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revisited.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0, 422-442.

---

2005년 10월 31일 투고 : 2006년 1월 28일 채택